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역사에서 보여 주었던 하나님의 보호의 장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그 당시 보호되었던 역사적인 기록의 의미와 지급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깊게 느끼고 그 이야기의 속에는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름이나 사건이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본의 질문을 통하여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한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투명인간 Wrote: im0091@--------

기도하며 말씀을 보낸 중 하나님의 응답 중에 사사기 5장24절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해낼 아내 아며 축복을 찾아보니 구체적인 것이 없던군요.
별씨 2년에가던요.
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삿 5:24) 겼 사람들 해낼의 아내야 며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은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은 것이로다

이 응답된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 이 본은 여인일 것으로 볼다.
그리고 내게 계속되는 담이 성적인 문제를 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고 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나안이라는 추속이 주는 의미와 야훼의 겼 추속이라는 점, 그리고 야훼이 시스라에게 대접한 것 부대와 우유가 주는 의미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성과의 관련성은 더욱 깊어지므로 이 답을 성과 관련하여 풀어보기로 한다.

이스라엘은 예호이 죽은 후에 다시 약한 행함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아비의 속국이 되고 군대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다시 꾸민함을 당한다.
이 때 이스라엘은 그 침평부대인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시작으로 가나안 토대로 나서게 되는데 이 때 앞앞 전 이스라엘의 수장은 바라크였고 이 세움에는 드보라도 함께 참여한다.

바라크 일 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을 때 시스라의 군대는 모세의 장인인 호법(이드로)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이인 해낼이 사는 곳을 떠나서 사나아님 상수러나무 옆에 장막을 치고 있었다. (삿4:11)

거기에서 바라크는 그들을 기선강으로 우연하였고 기선 강 골짜기를 이용하여 그들의 주력부대인 천평기를 무리치하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그리고 시스라는 도망을 하여 해낼의 집으로 숨어들었다가 야훼이 준 우유와 영건 것을 마시고 잠이드는데 이 틈을 이용하여 야훼는 시스라의 무리의 살책(구렛나무)에 장막말뚝을 박아서 즉
안타.

이러한 이야기는 한 역사가 이런 역사로 기록되었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행한 악이 가나안과 관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나안이 주는 의미는 성의 타락과 관련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나안이 주는 의미로써 가나안족속들은 성과 관련되는 문제를 상정하며 이를 보충 설명하는 부분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의미로써 그 바알제사가 주는 의미이다.
이 바알제사는 바알이라는 신이 생산의 신이라는 것을 상정하는 민중인 아세라와의 관계인 성적인 풍요를 상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써 바알제사는 타락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적타락과 관계가 있는 가나안의 왕 아반에게 속했다는 것은 콘 이들의 생활이 그들의 생활과 같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일선에 선 군대장관 시스라는 겐 족속의 장막을 지냈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이 겐 족속을 지나서 사나인 상수리나무 곁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차츰 점점되어 가는 가나안 사상을 물리치기 위해서 드보라는 여 선지자가 시켜 되었고 그 앞에는 바하이 서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 인식되어 가는 기독교 내의 성 문제를 고쳐나가는 일선에 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싸움은 그들이 앞세운 절명기를 무력화시킴으로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이 절명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력적인 힘을 도는 것으로 곧 이 시대에 있어서 종교적인 힘을 주장하는 자들이 앞세운 권력적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력적인 힘을 드보라는 여 선지자가 의미하는 어떠한 절대의 힘이 처부순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로 그 앞감이시 시스라는 패주하게 되었고 그는 헤벨의 아내인 아렴의 장막에 숨는다.
이렇게 시스라는 남의 아내의 장막에 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전부터 이들의 사이에는 서로 숨길 것이 없을 정도의 사이가 되어있었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이들이 움직인 죄에 빠져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스와 아렴의 관계에서 이제는 아렴이 젊단을 내릴 때가 온 것이다.
그것은 시스와 아렴의 관계를 정산하는 것으로써 결론은 그를 죽이는 일반이 그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몸을 닦라는 시스라에게 우유와 영간 것을 갖다 주는데 이것은 그 남만 특별히 한 일이 아니고 그 동안 해 오던 일로써 그녀는 늘 우유와 영간 것을 주어왔던 것이다.
이것은 그가 우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을 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이야기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아렴은 시스라는 잠들게 하기 위하여 그 동안 해오던 일을 다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яем의 몸을 시스라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시스라는 뜻기으므로 가지나 외로운 몸에 성관계까지 가지므로 이내 잡이 들고 말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이 야훼의 준 우유와 영건의 영양과 가나안 사람인 시스라는 야훼의 장막에 들어온 일, 그리고 그의 잡든 동안에 장막말뚝을 박아서 죽인 일과 관련되는 영양을 살펴보면 이는 앞으로 있을 일인 야훼로의 전쟁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시스라는 군대를 물리친 브리도산이 야훼로의 것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므로 야훼로의 전쟁의 영양 중 하나는 성문의 삼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삼문은 드브라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양의 힘을 바탕으로 바라이라는 선봉자에게 의해서 시작되고 가나안이라는 성적인 문제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결정적인 승리는 성문의 앞잡이인 시스라는 야훼이라는 어떠한 힘이 죽이므로 끝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으로 이 전투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한데 이것은 그 다음 드브라와 바라가 계속해서 합을 벌리고 끝내는 가나안 왕 야훼를 물리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의 또 한 면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헤름해져 끝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보여준 것이기도 한데 이것은 그 즉시가 주는 영양인 모세의 문제에서 보여주는 심보라가 주는 영양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출발하는 자리에서 심보라와 아들을 데리고 가리고한 것은 모세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심보라의 문제로써 그 동안 약 40년을 사는 동안 심보라 모세에게 성적인 문제를 주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그 증거는 모세가 구스여인을 첫으로 들일만큼 성과 관련되는 문제를 벗지 못하였다고 보는데 이는 성경이 정의하는 첫의 영양에 세력유구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있을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문제를 예고한 것으로써 야훼로의 삼문과 같은 삼문은 모세와 같은 힘을 가진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한 면의 예고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어떤 면이 이 응답을 받은 분은 이런 일을 타개해 나가는 일선에 서라는 응답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사실상 지금의 지도자들은 성경이 정의하는 성에 관한 문제를 너무도 쉽게 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동침(창41)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결과 용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그 결과가 가정을 낳았음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부부라는 연을 허락한 사이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들로서 지금의 지도자들은 부부라는 현도 안에서는 이미 허락된 상태이므로 즐길 수 있다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된 경의가 옳은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며 제시목에 기록된 멜망과 관련되는 모든 기록들이 성과 관련되는 멜망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